

## 병원의 시계 (단편소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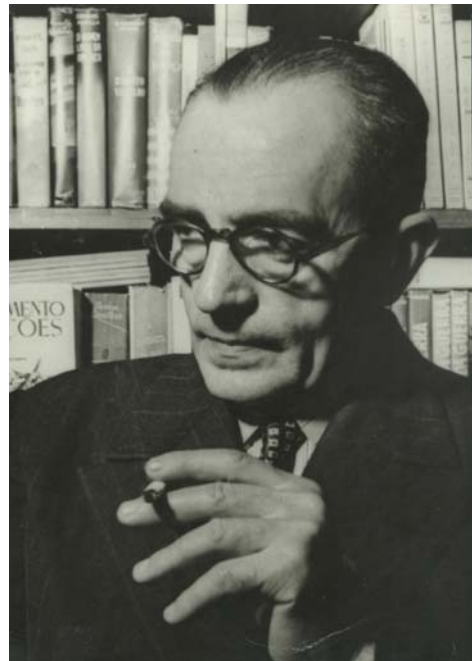
그라실리아누 하무스

의사는 마치 어린 아이에게 말하듯이 참을성 있게 내가 여기서 2주일을 머무르게 될 거라고 말하지만 나를 속이고 있다. 나는 그의 말을 무관심하게 받아들인다. 나는 내가 조금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딱딱한 매트리스 위에 뻗어 있는 내 마른 몸을 보니, 툭 튀어나온 뼈와 기운 없이 늘어져 주글주글해진 살갗이 마치 내 것이 아닌 것 같다.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다. 누군가가 발가벗은 나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방에 사람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더워 담요를 다시 차버렸다. 그리고 간호사가 나에게 비누칠을 하고 배의 털을 깎았을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들것에 누우면서 침대 옆에 슬리퍼를 벗어 두었지만, 수술실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 의사가 젊은 간호사에게 전문적인 용어로 무언가를 지시하고 나가자 그녀는 내가 움직이지 않는 물체인양 무관심하게 진찰한 뒤 나의 고통이 매우 심할 거라고 말했다. 췌소리, 마스크를 쓰고 탁자 너머로 몸을 구부린 채 나를 내려다보는 얼굴들, 소독약 냄새, 신속히 움직이는 장갑 낀 손들, 움직임이 없는 내 다리, 거무튀튀한 피부에 그어진 요오드 선 자국, 숨문치 등등 모두가 혼란스럽게 나의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맴돌았다. 나는 절개한 부분이 깊었

1) 우리말 번역은 1995년 부산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에 재학하던 김두빈 외 17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브라질 단편 번역 작업의 결과물이며, 박원복이 감수하였다. 원제는 'O relógio de hospital'이다.

다고 생각지 않았다. 단지 피부 겉면에 선을 하나 그었을 뿐, 나는 내 자신이 거의 죽은 시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지만, 수술이 시작되었을 무렵 이 생각은 초등학교 수업에 대한 기억들로 바뀌었다. 한 학생이 칠판에 기하학적인 그림들을 그렸었다. 배 아랫부분은 이미 죽어있다. 나머지 부분도 역시 죽을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날 영안실의 찬 대리석 바닥에서 쉬다가 곧 톱으로 4등분될 것이다.



그라실리아누 하무스(Graciliano Ramos)

눈을 감은 채 꿈쩍 않는 머리를 흔들어보려 했다. 조금 전 빈민 병실에 나타났던 무시무시한 얼굴이 나를 뒤쫓아 오며 괴롭혔다. 나는 들것에 실려 갔고, 의료진은 열려있는 어느 문 앞에서 멈췄다—반창고들로 이루어진 흰 창살이 나타났으며 그 창살 너머로 노란 얼룩들, 굵은 코, 뻣뻣하게 뚫린 입, 동공 없는 눈들이 보였다. 그 모자이크 창살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으며, 오랜 실신 상태에서 서의 무서운 환상들보다 더 무서웠다.

의사들의 작업은 귀찮게도 몇 달씩 이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시체보관소에 가는 걸로 24시간 후면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토막토막 잘려서 보관될 알데히드 냄새가 나는 희끄무레한 용기, 급히 작성될 사망진단서, 소맷자락을 걷어 올린 채 내게서 멀찌감치 떨어져 손을 씻을 의사.

이제 나는 이미 선고된 고통을 기다리고 있다. 시계의 꺾끄러운 소리가 나의 귀를 괴롭히며 진동한다. 무감각한 나는 길쭉한 양 다리와 그 다리를 덮은 담요의 접힌 주름을 바라본다. 또 다른 느린 시계 소리는 병실에 만연한 웅성거림을 잠재우며 울려 퍼진다. 그 시계 소리는 첫 번째 시

계 소리와 겹쳐 들리는 것 같다. 지나간 30분은 잃어버린 것이다.

무기력, 광대한 진공상태, 새로 온 간호사의 예견이 나를 엄습한다. 졸음, 피로, 혼자 있고 싶은 마음. 누군가가 내가 누워있는 침대에 몸을 구부려 내 심장에 귀를 기울인다. 바늘 하나가 내 팔에 구멍을 내고 느리게 혈관을 찾는다. 어둠, 침묵 그 다음 악기 하나가 연주를 하고 어둠이 열어지며 멀리서 지붕들, 나무들, 교회들이 어렴풋이 시야에 들어온다. 나는 끈 맨 끝에 매달린 장난감처럼 흔들거리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느낌을 갖는다.

계속되던 마비상태가 서서히 사라진다. 발가락이 움직이더니 뒤이어 발과 다리가 움직인다—그리고 나는 벌레처럼 몸을 둥글게 웅크린다. 고통이 엄습하자 그들이 내 다리를 잘랐다는 확신이 든다. 그 생각이 얼마나 생생한지, 몸이 예전처럼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자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불을 들친다. 다리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마치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아직 마비되어 있다. 다리를 오므렸다 펴면서 위 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나를 너무도 피곤케 한다. 그런 상하의 움직임 중 하나가 마지막으로 되어 끈은 끊어지고 나는 영원히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밤이다. 창문 사이로 갑작스런 어둠이 닥쳐 캠프의 빛을 제압해버린다. 달콤한 냉기가 퍼진다. 비가 심하게 창을 두드린다. 몇 분간 잠을 자다가 깨어난 뒤 다시 잠든다. 지속적인 소음들—자동차 굴러 가는 소리, 주정뱅이의 노랫소리, 다른 환자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한 이 잠속에서도 시계의 걸끄러운 소리가 크게 들려온다. 질질 끌리는, 감기에 걸린 듯한, 불만이 섞인, 숨 막힐 듯 가래가 끓는 그런 소리다.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시계는 여태껏 한 번도 본 적 없었다. 분명히 닳고, 이가 빠진 바퀴를 가진, 추위를 잘 타는 낡은 기계임에 틀림없다. 나의 할아버지는 내게 철자를 가르칠 때 이처럼 굵뜨고, 싫증나는 어투로 나를 야단치곤 했었다. 종종 재채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곤 하던, 혹독한 명령을 내리면서

농장의 흑인들에게 긴 잔소리를 하는 데 익숙하던, 그 강압적인 코맹맹이 소리. 시계는 늙은 골초 양반의 그런 가래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태엽이 풀리고 노쇠한 톱니바퀴들이 곧 멈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래. 지금부터 30분 후엔 거칠고 떨리는 그 시계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노란 형상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침대로 몸을 구부려 나를 일으키더니, 숨뭉치와 붕대로 감으며, 또 다른 망가진 이 기계의 나머지 부분을 구하려고 애를 쓴다. 떨떠름한 액체가 입술을 적신다. 의사와 간호사는 몽유병자들 같은 느린 동작으로 움직이고, 불빛은 희미해져 그들의 얼굴에 시체의 형상을 안기고 있다.

여기서 지내는 이 밤이 첫 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나의 슬리퍼를 돌려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맥이 풀려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가 나왔다. 나는 슬리퍼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슬리퍼가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리퍼를 갖다 달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 나를 짜증나게 한다. 만약 슬리퍼가 침대 다리 곁에 그대로 있었다면 현실에 가까이 있음을 나는 느낄 텐데... 또 나를 에워싼 사람들이 유명처럼 보이거나 얼토당토한 사람들로 보이진 않을 텐데... 그들은 나를 짜증나게 한다.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었으면 싶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여 분노에 몸부림칠 것이고 또 빈민들의 병실과 얼굴이 반창고로 뒤덮여 창살모양을 하고 있던 그때 그 사람을 생각할 것이다.

조용하다. 왜 이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고 또 시계는 침묵한 걸까? 어떤 생각 하나가 나를 맥 빠지게 한다. 만약 시계가 멈췄다면 반창고를 뒤덮어 쓴 그 사람은 죽었음에 틀림없다. 그건 견딜 수 없다. 나는 왜 그 저주받은 문 앞에서 눈을 뜬 것일까? 들것의 진동과 갑작스런 정지, 그리고 뒤이어 나타난 통제가 풀린 입, 텅 빈 동공이 흰 쇠창살 너머로 까맣게 되면서 그 음산한 얼굴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었다. 왜 그 문에서 사람들이 멈춰 있었던 걸까? 이쪽으로 두 걸음, 저쪽으로 두 걸음, 그러면 나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났을 텐데...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 시간을 계산하려고 시도하지만 불가능하다. 시계가 자신의 그 신경질적인 신음소리로 이 밤을 가득 채우려는가보다.

말을 하기 시작한 케이로스 의사는 말을 끝낼 줄을 모른다. 그의 말은 공범처럼 멍청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구역질나게 하고 또 우리를 병어리로 만들어 놓는, 끝없는 횡설수설에 불과하다.

다행히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인 사람은 살아있다. 반복하건데 그는 살아있고 나는 고통스러운 어떤 무기력에 빠져있다. 적막 속에서 긴 음악소리는 코브라처럼 파리를 틀고 병원에 퍼져 병실을 침입한다. 그리고 구석구석에 천천히 깔리더니 침상에 올라와 나를 공포에 떨게 한다. 나를 둘러쌌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 이젠 유충들처럼 느릿느릿 몸을 비비꼬는 벌레들만 있다. 나는 몸서리를 쳤고, 그 음악소리는 내 핏줄을 뚫고 들어와 나를 얼어붙게 한다.

유리, 비, 소음이 사라졌다. 밤은 깊어 무거운 하늘이 나의 침대 가장자리까지 내려앉는다. 끈적끈적한 것이 찌익 늘어나고 있다. 곧 나를 돌돌 말 것이다. 나는 그 무시무시한 포옹에서 벗어나려 한다. 매트리스에서 몸을 뒤집으며 고향을 지른다.

창백하고 조심스런 형체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떨떠름한 음료가 앵무새 혀처럼 마르고 딱딱한 내 혀를 적신다.

— 감사합니다.

턱까지 이불을 끌어당기자 추위가 경감된다. 거대한 강과 높이를 알 수 없는 절벽이 있어,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약한 나뭇가지를 잡는다.

엄청난 천둥소리를 듣는다. 나는 다시 어린애가 되어, 미스터리한 존재들도 그와 비슷한 굉음을 내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내 어린 형제들은 무서워 잠을 청하러 갔고, 나의 숙모들은 예배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촛불이 떨리고 목주를 돌리는 소리가 방석 모서리에 달린 장식들처럼 서로 부딪쳤다. 속삭이는 기도 소리들이 성인들의 방을 가득 메웠다.

왜 사람들이 내 가까이서 중얼대고 있는 걸까? 기도를 하는 걸까? 천둥이 치지 않는다. 형무소 지붕과 교회 그리고 나무 위에 하얀 눈이 내린다. 나를 둘러싼 형상들을 본다. 나에게서 멀어지며 낮은 소리로 무슨 말들을 주고받는다. 난 그들이 의혹어린 눈으로 나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나의 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확신하며,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또 내가 실신 상태에서 내뱉은 조리 없는 말들을 해석하려고 애를 쓴다. 창피하다. 혹시 내가 무슨 비밀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도 한 것은 아닐까?

나는 이성이 있는 사람이고, 꿈속에서나 할 미친 소리는 이제 끝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대화를 하기 위해 그들을 내 곁으로 부르고 싶다. 그러나 말이 새어나간다. 손짓으로 그들을 부르려 하지만, 손이 가슴위로 힘없이 떨어지고 무기력이 나를 마비시켜버린다.

정확히 말해 나는 며칠째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있다. 이제 열은 내렸고 나를 괴롭히던 괴물들은 형체 없이 사라져버렸다. 상처 부위의 아픔을 참을 수 없다. 이쪽저쪽으로 몸을 틀어본다. 나에게 슬리퍼를 되돌려 주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내 스스로가 이 고난의 긴 시간을 감내하리라고 상상해본다.

못처럼 귀를 찌를 듯한 아이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어제 있었던 나의 수술을 보고 싶어 한다. 여기에 일주일이나 한 달을 묶여 있게 될까?

시계추 소리가 생각을 가로막는다. 몸서리가 난다. 그 시계추 소리는 나의 열린 상처를 꿰뚫고 면도칼처럼 살 속으로 파고들어 신경을 건드렸다.

가난한 자들의 병실에서 들려오는 희망을 잃은 저 흐느낌들. 아마 반창고를 잔뜩 붙인 그 사람이 울고 있겠지. 귀에 손바닥을 힘겹게 갖다 댄다. 그런 자세로 있기를 원하지만 그 자세가 불편하고, 팔이 나를 피곤케 한다. 눈물이 손가락사이로 흘러내린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무와 하늘을 보면서 기분전환을 했을 텐데... 간호사와 의사에게도 말을 건넠 텐데...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팔이 흘러내리도록 내버려둔다. 어린아이의 불쌍한 비명은 다시 시작되고, 내 고통도 커진다. 의사들이 그 불쌍한 아이를 괴롭힌다고 확신한다. 길에서 구걸하고, 흠치고, 더럽고, 낡은 누더기 차림에, 살을 비집고 튀어 나올 듯한 앙상한 몸골들. 회충에 걸려, 나무 망태기처럼 굵은 다리를 끌며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보잘것 없는 부랑아들을 생각한다. 아마도 그 말라비틀어진 다리들 중 하나를 고치고 있겠지.

울부짖는 소리가 작아지더니 결국 거친 임종의 숨소리로 바뀐다.

— 왜 그 아이를 괴롭히는 걸까?

간호사가 다가와 내가 방금 내뱉은 말을 반복해주길 원한다. 그 간호사를 이해시키지 못해 짜증이 나서 힘겹게 돌아눕는다. 몇 분 후 발끝으로 소리 없이 조심스레 물러가는 간호사의 발자국소리가 들린다.

나를 여기 가둬둔 지 단지 24시간밖에 안 된단 말인가? 합산을 해본다. 24시간, 48시간, 72시간. 아마 3일은 될 것이다. 곱해본다. 60일, 1,440시간. 무척 피곤하다. 계산이 복잡해져 서로 다른 답이 나온다. 결국 1,440시간임을 확신한다. 상처가 악화되어 빨리 죽는 게 좋겠다. 고통의 2개월, 내장을 가로지르는 고무 튜브, 무시무시한 환영들, 반창고 붙인 사람 곁에서 숨을 거두는 가난한 이들의 한탄소리. 부품이 낡아빠진 저 미친 시계가 나에게 음울한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고 위협하며 2,880번을 칠 것이다. 꿈쩍하지 못한 60일! 무척이나 불분명하게 얹히고설키는 생각들. 어린아이의 비명소리가 커지고 더위도 심해지고, 나무와 지붕들은 가까워진다. 수도꼭지에서 물망울이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복도에서 시간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자동차 소음, 행상인의 외침소리. 아마도 자동차는 나를 치료하러 오는 의사의 것이겠지. 그렇지 않다.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버렸다. 이제 들리는 소리는 북소리와 명령 소리들이다.

행상인의 소리가 갑자기 병실로 뛰어들더니, 고압솔에서 나는 췌소리와 가난한 환자들의 울음소리와 한데 섞여 엄습한다.

— 쓸모없는 짓이야. 다 쓸모없는 짓이야.

화가 치민다. 나를 치료치 말고, 시체처럼 부패되어 처참히 죽도록 내버려둬라. 침묵이 한동안 지속된다. 반창고 가면 뒤에 숨어있는 사람과 아이를 생각한다.

—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간호사는 잘 있다고 대답하지만 분명히 나를 속이려 하고 있다. 여기 가까이 작은 시신 한 구가 있다. 의사들은 시체실 탁자에서 그 시신을 토막 낼 것이고, 나머지 병원 종사자들은 시신이 남긴 더러운 옷을 세탁소에 가져갈 것이다. 좁은 침대에 접혀져있는 작은 매트리스.

명령 소리, 신음소리, 행상인의 외침소리, 고압솔에서 나는 췌소리의 잡음이 그립다. 조용한 것은 나쁜 징조라고 확신한다. 침묵이 깨질 때 갑자기 불행한 일이 생겨날 것이고, 난 그 불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땀이 얼굴에 흘러내린다. 처음 들려올 소리는 불행을 선언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기침을 억누르면서 나는 그 기침이 각혈의 징조라고 믿는다.

난 귀가 먼 시계추 소리와 지친 말의 말굽 소리가 들려오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건 당연히 내 피가 내 귀를 두드리는 소리다. 거의 쓸모없는 심장 하나가 박동을 멈춘다.

그 작은 시체는 해부용 재료로 변할 것이다. 째깍째깍. 피가 흐르는 소리가 아니다. 아마 외부에서, 복도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일 것이다. 두 번은 가까이, 한 번은 멀리서 들려오는데 그것은 세발로 뛰는 동물의 불규칙한 걸음걸이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조용했었다. 갑자기 낡은 시계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눈을 감는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린다. 괜스레 내가 피곤해하며 하품을 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일들



을 기억하려 애쓴다고... 결국 불행은 오지 않았다. 나는 내 몸을 다시 추스를 짓이고 거리를 산책하며 카페에도 드나들 것이다. 내 슬리퍼만 가져가지 않았어도 나는 내가 그리 아프지 않다고 확신할 텐데.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잠을 자려 노력하지만 시계가 아픈 내 머리를 계속 두들긴다. 나는 랜스레 자동차 경적 소리, 술주정뱅이의 노래, 명령 소리, 고압솔에서 나는 쇳소리의 잡음이 기다려진다. 망령든 시계추가 내 몸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든다.

불행한 이들은 침묵을 했고, 모든 고통은 점차 사라져 귀에 거슬리는 금속과 같은 소리에 녹아들었다.

나의 여원 팔은 늙은이 팔처럼 움직인다. 얼굴에 손가락을 대보니 거친 수염과 움푹 팬 물결 그리고 주름이 느껴진다. 거울이 있다면 이 누추한 물결을 볼 수 있을 텐데.

축 늘어진 다리를 서로 바꿔가며 거리를 걷는 늙은이. 망태기처럼 가늘고 연약한 다리를 바라본다. 눈이 흐릿해진다. 지팡이에 지탱한 채 말도 더듬거리며 비틀대는 늙은이. 째깍째깍. 보도블록을 두드리는 지팡이 소리.

생각은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미끄러지듯 넘어간다. 길어진 수염은 하얗게 되었을 것이 틀림없고, 목은 닭목처럼 주름이 졌다.

여자가 단추를 풀고 흥얼거리며 옷을 벗었고, 나는 부끄러워 저만치 떨어져서 매듭진 구두끈을 풀려고 애를 썼다. 차마 바지를 벗을 수 없어서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자명종 시계만 멍하니 쳐다보았다. 시계바늘은 계속 움직였고, 구두끈은 좀체 풀리지 않았다.

선생님은 조소하는 듯한 딱딱한 목소리로 긴 교과목을 설명했고 꼭 돌을 씹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내게 추천장을 써 주었다. 나는 어려운 감사의 말을 더듬거렸고, 아름다운 타이피스트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져 뒤죽박죽 행동했다. 안경 쓴 한 비서의 시선과 탁탁거리는 타자기의 소리에 쫓기듯

나는 계단을 내려왔다.

모든 게 혼란스럽다. 옷을 벗은 계집애, 선생님, 정치인의 모습이 서로 뒤섞인다. 어린 환자, 간호사들, 의사들,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인 사람 등이 나무들, 지붕들, 하늘, 교회들과 구분이 되질 않는다.

나는 분해되어 담요를 벗어나, 벚짖 올타리 사이로 피어오르며 햇빛에 반짝거리는 먼지 속으로 승천하여, 신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 아득히 들려오는 목소리와 낡은 시계의 공포스런 시계추 소리 사이를 떠돌게 될 것이다.

---

그라실리아누 하무스(Graciliano Ramos) — 1892년 10월 27일 브라질의 북동부 알라고아스 주 내륙 오지지방인 케브랑굴루(Quebrangulo)에서 16명의 형제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17세가 되던 1909년 알라고아스 주의 수도인 마세이오에서 《알라고아스 저널》(Jornal de Alagoas)에 글을 기고하기 시작한다. 여러 개의 가명으로 저널에 작품을 기고하던 하무스는 알라고아스 주의 파우메이라 두스 인지우스(Palmeira dos Índios)로 돌아와 1927년 시장으로 당선되었으나 2년 뒤 사임하였다. 정치에서 손을 뗀 하무스는 1933년 그의 첫 번째 소설 『카에테스』(Caetés)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본격 등단한다. 1934년엔 『성 베르나르두』(São Bernardo)를 발표하지만 이듬해 공산주의자들의 소요사태에 공모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937년 1월까지 복역하게 된다. 그해 8월 하무스는 감옥생활을 소재로 『고통』(Angústia)을 발표하며 이듬해엔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메마른 삶』(Vidas Secas)을 발표한다. 그러나 1945년 하무스는 공산당에 입당하면서 정치활동을 하는 듯했지만, 1947년에는 『불면』(Insônia)을 발표했고, 1953년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많은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염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하무스의 작품들은 1930~40년대 브라질 북동부지방의 향토문학(regionalismo)의 큰 줄기를 형성하였다. 많은 작품이 세계 각국에서 번역되었으며 『메마른 삶』의 경우 미국 버지니아 주 소재 윌리엄 포크너 재단의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